

## 박종원 총장의 기억

한국예술종합학교 개교 20주년 기념 백서, 2012

### 갈등과 진통, 지혜로운 대처

제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오게 된 것부터 잠깐 말씀드리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은 3번째 원으로 95년도에 개원했습니다. <구로 아리랑>,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영원한 제국> 등 여러 작품을 만들고 난 후 학교에서 전임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해 왔어요. 영상원을 개원할 무렵에 제안이 왔었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영화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여건이었고 영화계에서 기대하시는 분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계속 해야 하는데 학교를 오라니 고민이 되었죠. 그래서 선뜻 가겠다고는 하지 못했고 강의 한 과목만 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피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나 또한 학부도 나오고 영화학교도 다녔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조금 더 달랐으면 하는 것이었어요. 학교에서 미리 배웠더라면 시행착오가 적었을 텐데, 미리 알았다면 훨씬 더 다른 곳에 힘을 주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썼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곤 했지요. 영화교육은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잘 할 수 있을 지와는 별개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 결국은 후배인 우리 학생들과 같이 뒹굴며 내가 배워도 보고, 혹시 내가 아는 것이 더 있다면 알려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한예종에 오게 되었죠. 그 후 어찌하다 보니 총장까지 하게 되었는데 2008년과 2009년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특히 2009년도 봄부터 우리 학교에 대한 문화부의 감사가 있었죠. 정기적인 감사인데 조금 강하게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에 걸쳐서 말이죠. 기간이 길었다기 보다 많은 부분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감사 결과 처분서를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많았어요.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어떤 측면에서는 학교에 대한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었지만, 하여튼 정서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죠. 그때 지적되었던 것 중에 분명히 규정이나 규범에 위반되는 것들은 우리가 고쳐야 했고, 고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것들을 반듯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차후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했어요. 예를 들면 협동과정 같은 것은 취지는 아주 좋지만 그것이 규정에 조금 어긋나게 되어 있어서 원래의 모습대로 환원하려는 노력을 해야 했어요. 그렇지만 협동과정을 만들려고 했던 취지를 살려 각 원이나 학과의 교과과정을 통해 실현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여러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빨리 안정된 학교의 모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취임 초반에는 이 문제들을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아요.

## 기초의 확장, 융복합 예술교육, 사회와 교감하는 예술가를 위한 학교

2009년 우리 학교가 사람 나이로 치자면 청소년기를 넘어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우리에게 필요하거나 혹은 부족했던 교육의 측면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전문 예술가 양성을 위해 실기를 중심으로 교육해 왔고, 일반 대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하면서 이에 적합한 학생들을 뽑았죠. 또 영재학교를 통해서 미리 어린아이들에게 영재교육을 시키는 등 차별화된 교육방식을 유지해 왔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많은 성과나 결실을 낳았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많은 성과의 이면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떤 성과나 결실만을 향해 달려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이제 20년 성인식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학교의 예술가들이 같이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예술교육의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또 캠퍼스 안에만 갇혀 지내지 않고 보다 폭넓게 외부와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예술교육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님들도 가지기 시작했어요. 예술가의 존재 가치를 확장시켜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 예술가 자신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학교의 조건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우리 학교가 그동안 실기 중심의 전문예술인 교육은 아주 잘해왔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의 열정과 역량 그리고 특별한 학생들을 뽑는 입시제도, 어려서부터 미리 뽑는 영재교육 방식 그리고 교수와 학생들 간에 사제관계를 넘어서서 같은 동료이자 같은 예술가로서 가질 수 있는 선후배 느낌도 강했죠. 그런 성과가 있었지만 지금 예술과 예술교육이 처해 있는 또 다른 환경을 봐야 하고 예술학교의 과제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단계에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는 융복합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우물을 판다고 할 때 이제는 그 우물이 가진 가치를 확장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물 밑을 흐르는,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기초들을 발견하고 이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다양한 사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우물 안만 열심히 들여 보고 우물 안을 어떻게 꾸밀까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우물 밑도, 우물 위도 우물 옆도 살펴야 하고,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우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이든 연기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미술하는 사람이든 예술가로서 사유의 기초를 튼튼히 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초의 확장과 융복합적 활동이 젊은 예술가들을 양성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예술가가 '왜 내가 예술을 하며 예술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삶의 가치와 내가 하는 예술의 행위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자꾸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하는 예술이 곧 나의 삶의 가치들을 외화 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타인과 나누는 것인데, 그 의미들에 대해 조금 더 많은 생각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예술이 타인과 공감을 만들어내고 그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감동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술이 할 수 있는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요? 사람들과 다양한 사고와 가치를 나누는 것, 그래서 혼자 자신의 예술에 갇혀 있지 않고 사회와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예술만을 위한 예술도 중요하지만, 사회를 위한 예술, 사회에 보다 아름다운 가치들을 제시하고 확장하려는 예술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 학교가 훌륭하게 수행해 왔던 전문 예술가 양성을 위한 심화 교육만큼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축 즉, 생동적이고 융복합적인 젊은 예술가를 위한 교육과 세상에 기여하는 예술가 교육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이 보다 합일적 예술가의 양성을 위해 학교가 제공해야 하는 교육의 틀이자 앞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학교는 세계 수준에서 누구보다 앞서 있고 누구와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세계 예술 교육의 어느 학교보다, 어느 교육 기관보다 최소한 반 발짝 이상씩은 앞서가야 하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반성과 계기

참으로 가슴 아팠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작년이었죠. 작년 봄에서 여름 1학기 동안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연이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던져버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고 가슴 아팠습니다. 총장 이전에 선배로서, 또 아버지와 같은 입장에서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곧 반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학교에서 무 었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학생들은 저런 상태인데, 우리가 학생들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될까? 이런 반성이었고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학생들의 심리상태가 굉장히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다면적인 인성검사나 이런 것들을 시행해 왔고, 학생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준비도 했었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죠. 그정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구성원들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과 시선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한두 명의 잘하는 사람들, 한두 명의 김연아만을 만들어내는 교육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하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정서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의 사건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기도 했구요. 우리가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 20년 그 이후

우리 학생들이 발표하고 전시하는 공연장에 가면 “어, 내가 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구성원이구나. 정말 좋다”는 감정이 끊임없이 솟아 나옵니다. “내가 예종인이라 이러한 감동의 순간에 맞닥뜨려 볼 수 있구나. 예종인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프로그램이나 도록에 남아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때마다 느낌을 메모해 두는데 학생들의 모습은 저에게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자긍심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예술이 어렵기도 하지만 또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술을 향유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술가들의 것들을 느낄 때 어떤 감동을 받을지 생각하면 뿌듯합니다. 예종인이라는 것 그 자체가 참 행복한 감정을 가져다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고 있는 전공의 기술과 역량을 확장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밑에 예술가로서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과 세상의 이치들, 삶의 가치들을 이해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사유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20살 성인식을 치른 학교의 가장 큰 과제일 수도 있구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왜 예술을 하는지, 행복한 예술가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예술 행위를 통해 수용자, 일반인, 향유자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삶에서 어떤 변화와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는지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의 발전에 기여하는 예술의 상을 찾는 것으로 연결되겠죠.

요즘 글로벌 시대라는 말을 많이 쓰는 데 정말 예술이야말로 글로벌 시대를 앞당기고 성취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글로벌하다는 것은 내가 사는 지역과 사회, 나라만이 아니라 처해있는 주변 지역사회, 그 옆의 지역사회, 그리고 내가 처해있는 환경 외에 다른 환경들을 이해하고 눈여겨보면서, 그들과 같이 서로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들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겪지 못했던 환경과 처지나 상황에 들어가 봐야 하며, 내가 가진 예술의 역량을 가지고 그 지역과 사회에 가서 그들과 어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다시 나는 다른 빈 그릇에 내가 알지 못했고, 갖지 못했던 것들을 담아 와야 합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확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 융복합 봉사 프로젝트도 이같은 의미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겠죠. 이외에도 다른 프로그램들도 끊임없이 교과과정 속에서 아니면 교과과정 바깥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가 스스로가 자기 삶과 삶의 가치의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경험과 능력들이 쌓여 빨리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술가로 살 수 있는 자양분을 줄 것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국립 예술 대학입니다. 국립 학교라고 하면 국가에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지원해주는 그런 대학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특별한 목적이란 것은 딱 잘라 이거라고 말 할 수 없지만 어떤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겠죠. 나는 그 공공적 가치를 예술을 통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를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찾아야 하고, 이 아름다움을 예술을 통해 확산하려는 사회적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적 가치들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학교에 정부의 더 많은 지원 더 나아가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이 우리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국립예술대학으로서 우리는 등록금을 동결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인하의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금 부담으로 좋은 예술가들이 우리 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면 이는 크나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원들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고 국립 예술 대학으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국립 예술 대학으로서 입시과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고, 우수한

재능들을 제대로 발굴할 수 있는 입시제도에 대해 연구해야 합니다. 더욱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뽑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입시제도와 관련한 몇몇 문제들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개선해 가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입시제도와 학생선발이 모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립 예술 대학으로서 우리 학교는 사회의 소수 계층과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 해야 합니다.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원 외 입학제도의 확대나 특별전형의 확대도 필요합니다. 이는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지원해주거나 나눠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의 복지 개념은 내가 저 앞의 가난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불편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하는 사회라는 것을 깨닫고 같이 살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술 학교 또한 예술의 영역에서 이러한 생각을 당연히 실현해야 하고 또한 예술가들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출신의 예술가, 각기 다른 인종과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젊은 예술가들이 글로벌하고 개방적인 가치관과 삶의 태도들을 먼저 가지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학교는 세계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그런 좋은 학교로 자리 잡을 것이고 세계가 좋아하고 찾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